

다음은 김홍도의 풍속화 「서당」을 설명하는 글이다. 그림에 담긴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글쓰기가 사용한 설명 방법과 그 효과를 파악하며 글을 읽어 보자.

## 김홍도의 「서당」에 담긴 이야기

풍속화를 본 경험이 있는지 말해 보자.

옛날 사람들이 다니던 학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의 초등학교와 비슷한 조선 시대의 학교는 서당이다. 그 시절 서당의 모습은 김홍도의 풍속화 「서당」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리가 사진으로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듯이 김홍도는 그 시대 사람들의 생생한 일상을 풍속화로 남겨 오늘날까지 전해 주었다. 풍속화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그린 그림을 말한다. 5

김홍도의 풍속화 「서당」에는 인물의 배치나 표정, 행동만으로 화가가 전달하려는 이야기가 표현되어 있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서당」을 분석하여 그림 속에 담긴 조선 시대 서당의 모습과 그 속에 감추어진 이야기를 살펴보자. 10

「서당」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체적으로 둥글게 배치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모두의 시선이 가운데 앉아 울고 있는 아이에게 집중된다. 우는 아이를 포함해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표정이 저마다 달라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해진다. 15

- **대님** 한복에서, 남자들이 바지를 입은 뒤에 그 가랑이의 끝 쪽을 접어서 발목을 졸라매는 끈.

먼저 가운데 앉은 아이부터 보자. 아이는 한 손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 발목의 **대님**을 푼다. 뒤에 어지럽게 펼쳐진



- 김홍도, 「서당」.





책으로 보아 배운 것을 다 외우지 못해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 상황인 듯하다. 김홍도는 축 처진 눈  
썹과 구불구불하고 진한 옷 선으로 회초리 맞을  
것이 무서워 몸을 떠는 아이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옷 선에 우는 아이의 감정을 절묘하  
게 담아낸 것이다. 5



옷 선으로 인물의 감정까지 드러낸 화가의 숨씨  
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뒷모습만 보이는 아이  
의 어깨와 팔의 옷 선이 물결처럼 구불거린다. 그  
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구불거리는 옷 선  
으로 아이가 어깨까지 들썩이며 킁킁 웃는 모습을  
표현한 듯하다. 우는 아이와 웃는 아이, 표현하고  
자 하는 상황은 반대이지만 화가는 두 상황 모두  
인물의 생생한 감정을 옷 선을 통해 재치 있게 표  
현하였다. 10 15

다음으로 뒤쪽에 앉은 훈장님을 보자. 옷을 제법 잘 갖추어 입어  
얼핏 단정하고 위엄 있어 보인다. 그런데 좀 더 꼼꼼히 보면 네모반  
듯한 •사방관 속에 머리숱이 별로 없다. 몇 올 안 되는 머리털을 끌  
어모아 튼 상투는 아주 조그맣고 •망건조차 쓰지 않아

옆머리가 어수선하게 흩어졌다. 훈장님의 표정  
을 보면 막상 아이가 울자 안쓰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찢찢매는 것 같기도 하다. 가장  
엄숙해야 할 훈장님을 이렇게 그려 놓으니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스꽝스러우면  
서도 생동감이 넘친다.



마지막으로는 빙 둘러앉아 웃고 있는 아이들을

- 사방관 망건 위에 쓰는 네모반듯한 관.
- 망건 상투를 튼 사람이 머리카락을 걷어 올려 흘러내리지 않게 머리에 두르는 그물처럼 생긴 물건.



살펴보자. 그림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를 더욱 돋우는 것이 이 아이들의 표정이다. 그런데 훈장님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 앉은 아이들의 표정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다들 웃고 있지만, 오른쪽에 앉은 아이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것과 달리 왼쪽에  
5 앉은 아이들은 살짝 미소만 머금은 채 모두 무엇인가를 하느라 바빠 보인다.

왼쪽 맨 밑에 앉은 아이는 손으로 책을 가리고 있다. 혹시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답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닐까? 그 위에 앉은 아이는 다음 차례가 자기 차례여서 책의 내용을 미리 훑어보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옆의 아이처럼 답을 찾아 주려고 그러는지 책을 뒤  
10 적인다. 맨 위의 아이는 손으로 입을 살짝 가리고 훈장님 몰래 답을 말해 주는 것 같다. 이 아이들은 왜 우는 아이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까? 그 까닭을 알기 위해서는 김홍도가 살았던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왼쪽에 앉은 아이들이 우는 아이를 도와주려는 까닭이 무엇일지 말해 보자.

조선 전기만 해도 주로 양반들만 서당에 다녔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양반들과 함께 서당을 다니며 공부하는 평민들이 늘어났다. 이는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부자가 된 농민과 상인이 등장하는 한편 양반의 지위가 약해지고 가난한 양반이 생기는 등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조선 후기에 들어 양반과 평민이 함께 앉아 공부할 수 있었던 까닭은 경제 발전으로 인한 사회 변화가 신분제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5

그림 속의 아이들은 신분에 따라 양반과 평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신분에 따라 달랐던 옷차림만 봐도 알 수 있다. 짧은 저고리를 입은 왼쪽 아이들이 평민이고, <sup>•</sup>초립을 쓰거나 바닥까지 길게 늘어진 <sup>•</sup>도포를 입은 오른쪽 아이들이 양반이다. 아이들은 신분에 따라 양쪽으로 나누어 앉았고, 그에 따라 표정과 행동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울고 있는 아이는 어느 쪽일까? 당연히 평민이다. 앉은 곳도 그쪽이고, 겹옷의 길이도 짧다. 그래서 왼쪽 아이들은 우는 아이를 도와주려 하고, 오른쪽 아이들은 마음껏 웃는 것이다. 10 15

흥미로운 것은 김홍도가 왼쪽 아이들을 오른쪽 아이들 못지않게 툭툭해 보이게 그렸다는 점이다. 우는 아이를 제외하고는 다들 눈망울이 초롱초롱하다. 또한 오른쪽 밑에서 두 번째 아이는 양반임에도 혼자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아마도 우는 아이와 마찬가지로 배운 것을 다 외우지 못한 듯하다. 김홍도는 이를 통해 비록 신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지식을 평가받는 자리에서만큼은 양반과 평민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말하려고 했을 것이다. 20

중인 출신인 김홍도는 거드름 피우는 양반보다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평민을 더 사랑했다. 이러한 화가의 마음은 그가 그린 다른 그림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씨름」, 「빨래터」, 「나들이」 등이 그 예이다. 이 그림들에서 양반은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평민들에 비 25

그림 속 아이들이 양쪽으로 나누어 앉은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 **초립** 예전에 주로 어린 나이에 관례를 한 사람이 쓰던 갓.
- **도포** 예전에 통상예복으로 입던 남자의 겹옷.





- 김홍도, 「씨름」.



- 김홍도, 「빨래터」.



- 김홍도, 「나들이」.

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점잖지 못하게 표현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김홍도의 「서당」에는 조선 후기 우리 조상들이 다니던 학교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한자리에 앉아 공부를 하면서도 신분에 따라 양쪽으로 나누어 앉은 아이들, 회초

5 리 앞에 우는 아이, 엄숙한 듯 보여도 따스한 애정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훈장님까지. 이러한 서당의 모습은 현재의 교실 풍경과 다른 점도 있지만 그들이 만들어 내는 유쾌한 웃음은 오늘날 학교 교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닮아 있다.

「서당」을 통해 살펴본 조선 후기 학교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해 보자.